2019년 1월 8일
KIWOOM DAILY
|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아마존, 마이크론 급등에 힘입어 상승

국제유가, 사우디 감산 규모 확대에 힘입어 상승

미 증시 상승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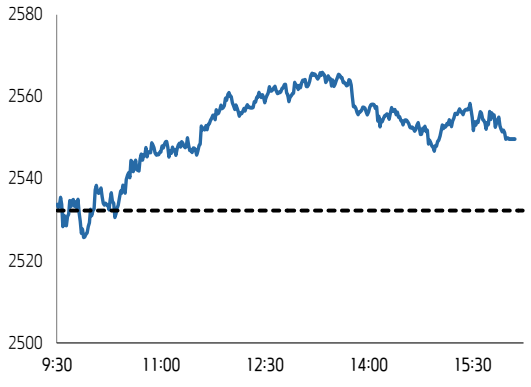
미 증시는 미-중 무역협상 기대와 국제유가 강세에 힘입어 상승. 더불어 아마존(+3.44%)과 마이크론(+3.98%)이 목표주가 상향 조정에 힘입어 급등 한 점도 긍정적인 영향. 다만, 장 후반 차익 매물 출회로 상승폭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며 마감. 한편, 장 막판 백악관이 셧다운에도 불구하고 세금 환급은 이어질 것이라고 발표하자 재차 반등하기도 하는 등 변화를 보이기도 했음(다우 +0.42%, 나스닥 +1.26%, S&P500 +0.70%, 러셀 2000 +1.78%)

미 증시는 ①국제유가 상승 ② 아마존과 마이크론 급등 ③미-중 무역협상 기대감에 힘입어 상승. 국제유가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 수출을 하루 평균 710 만 배럴로 줄일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 특히 이는 사우디가 OPEC 정례회담에서 합의했던 하루 평균 25 만 배럴 감산을 크게 상회한 80 만 배럴 감산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영향. 더불어 사우디 정부가 발표했던 올해 재정지출 7% 확대를 감안하면 국제유가가 80 달러에 달해야 된다는 분석이 제기되자 WTI 는 장중 한 때 50 달러선에 근접.

한편, 아마존은 피보탈 리서치가 올해 20% 이상 상승 할 것이라고 발표하자 상승. 피보탈은 아마존이 소매, 광고 및 AWS 전반에 걸쳐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며 목표주가 1920 달러로 제시. 이에 힘입어 여타 소매 유통업체들도 동반 상승. BMO 캐피탈은 마이크론 목표주가에 대해 올해 50% 반등한 50 달러로 제시. 이에 마이크론이 급등하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1.95%) 상승을 견인. BMO 는 비용구조가 최고치 대비 20 억 달러 감소하는 등 비용 절감 속도가 높고, AI, 자율주행 등에 대한 높은 기대가 관련 업종의 강세를 이끌 것으로 전망.

미-중 무역협상 기대감 또한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 미 상무부 장관이 "매우 좋은 기회" 라고 언급 했으며, 중국 또한 "건설적인 대화를 기대한다" 라고 주장. 여기에 다보스포럼(22~25 일)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왕치산 부주석이 회동을 가진다는 소식도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등락률(%)	Close	D-1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2,037.10	+1.34	홍콩항셍	25,835.70	+0.82
KOSDAQ	672.84	+1.26	영국	6,810.88	-0.39
DOW	23,531.35	+0.42	독일	10,747.81	-0.18
NASDAQ	6,823.47	+1.26	프랑스	4,719.17	-0.38
S&P 500	2,549.69	+0.70	스페인	8,776.30	+0.44
상하이종합	2,533.09	+0.72	그리스	620.60	+0.80
일본	20,038.97	+2.44	이탈리아	18,953.27	+0.65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소매유통 업체 상승

아마존(+3.44%)은 목표주가 상향 조정에 힘입어 상승 했다. 한편, 지난 금요일 고용보고서에서 임금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 향후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자 강세가 이어졌다. 월마트(+1.18%), 타겟(+4.89%) 등과 TJX(+2.69%), 메이시스(+1.80%), 콜스(+2.41%) 등 백화점 업체도 상승 했다. 한편, GM(+3.09%)은 투자의견과 목표주가 상향 조정에 힘입어 상승했다. 포드(+2.60%)도 동반 상승 했다.

마이크론(+3.98%)은 목표주가 상향 조정에 힘입어 급등 했다. 브로드컴(+2.04%), AMAT(+1.78%), NVIDIA(+5.29%)도 동반 상승 했다. GE(+6.20%)도 항공기 임대 사업부의 매각 기대감에 급등 했다. 엑손모빌(+0.53%), 셰브론(+1.30%), EOG리소스(+0.63%) 등 에너지 업종은 국제유가 상승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다. LOxo(+66.33%)는 일라이릴리(+0.54%)가 인수한다고 발표하자 급등 했다. 최근 M&A를 발표한 브리스톨마이어스(+3.24%)와 셀진(+3.09%)도 동반 상승 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속에 바이오젠(+1.28%), 암젠(+1.35%) 등 바이오 업종도 강세를 보였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3.42%	대형 가치주 ETF	+0.73%
에너지섹터 ETF	+3.88%	중형 가치주 ETF	+0.93%
소매업체 ETF	+3.10%	소형 가치주 ETF	+1.09%
금융섹터 ETF	+0.16%	배당주 ETF	+0.99%
기술섹터 ETF	+0.89%	변동성 ETF	-2.28%
소셜 미디어업체 ETF	+1.97%	대형 성장주 ETF	+1.02%
인터넷업체 ETF	+2.29%	중형 성장주 ETF	+1.69%
리츠업체 ETF	+0.85%	소형 성장주 ETF	+2.39%
주택건설업체 ETF	+2.26%	신흥국 고배당 ETF	+0.32%
바이오섹터 ETF	+3.35%	신흥국 저변동성 ETF	+0.14%
헬스케어 ETF	+0.36%	하이일드 ETF	+1.11%
곡물 ETF	+1.39%	물가연동채 ETF	-0.09%
반도체 ETF	+1.82%	Long/short ETF	-1.02%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49.14	+1.29%	+6.39%	-5.32%
소재	322.39	+0.32%	+2.64%	-2.84%
산업재	552.56	+0.68%	+2.95%	-5.53%
경기소비재	817.35	+2.36%	+5.73%	-3.10%
필수소비재	525.52	-0.28%	+1.10%	-7.14%
헬스케어	998.85	+0.41%	+1.15%	-6.91%
금융	403.47	+0.23%	+2.91%	-4.67%
IT	1,088.59	+0.86%	+0.98%	-7.03%
커뮤니케이션	145.21	+0.76%	+4.93%	-1.06%
유틸리티	266.08	-0.71%	-0.75%	-6.08%
부동산	192.34	+0.79%	+0.02%	-9.49%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제한적인 상승 전망

MSCI 한국 지수 ETF 는 0.38% MSCI 신흥 지수 ETF 는 0.25% 상승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수(+236 계약)에 힘입어 0.70pt 상승한 263.50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16.8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3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관련 실무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장관은 "합의에 좋은 기회"라고 주장 했으며, 중국 정부 또한 긍정적인 발언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불협화음이 지속되고 있어 8 일까지의 협상에서 뚜렷한 타결책이 나올 가능성은 제한 된다. 이런 가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95% 상승 하고, 국제유가 또한 강세를 보이는 등 주변 여건은 긍정적이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후 삼성전자 잠정실적과 이틀째로 접어든 미-중 무역협상 관련 뉴스가 시장 변화를 이끌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미 증시는 오후 들어 매물이 출회되며 상승분을 일부 반납했다. 여전히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불확실성과, 영국 브렉시트 문제, 미국 셧다운 이슈 등이 해결되지 못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는 한국 증시의 상승을 제한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옵션만기일을 앞두고 외국인의 선물 매매 동향에 따라 변화가 예상되기에 관련 수급 동향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서비스지수 둔화

12 월 미국의 ISM 서비스업지수는 전월(60.7)은 물론 예상치(58.4) 보다 둔화된 57.6 으로 발표되었다. 신규수주(62.5→62.7)은 상승 했으나, 고용지수(58.4→56.3), 가격지수(64.3→57.6)가 크게 둔화된 점이 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

독일의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1.4% 증가했다. 지난달 발표치(mom +0.1%)는 물론 예상치(mom +0.4%) 보다 개선된 수치다. 유로존 소매판매 또한 전월 대비 0.6% 증가하는 등 양호한 결과가 발표되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상승

국제유가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 수출을 하루 평균 710 만 배럴로 줄일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했다. 특히 사우디가 OPEC 정례회담에서 합의했던 하루 평균 25 만 배럴 감산을 크게 상회한 80 만 배럴 감산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더불어 사우디 정부가 발표했던 올해 재정지출 7% 확대를 감안하면 국제유가가 80 달러에 달해야 된다는 분석이 제기된 점도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달러화는 셧다운 장기화에 대한 우려 및 유로화 강세 여파로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였다. 유로화는 독일과 유로존의 소매판매가 예상보다 양호한 결과를 발표한 데 힘입어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경제지표 둔화에도 불구하고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진 데 힘입어 상승 했다. 한편,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는 "중립금리는 2.50~3.25%이며, 올해 한번의 금리 인상을 전망한다" 라고 언급 했으며 "경기는 여전히 좋은 모습이다" 라며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 했다. 다만, "셧다운 장기화는 문제다" 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보스틱 총재의 발언도 금리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금은 달러 약세에 힘입어 상승 했다. 구리를 비롯한 비철금속은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며 상승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79%, 철근은 0.37% 상승 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WTI	48.52	+1.17	+7.04
브렌트유	57.33	+0.47	+7.74
금	1,289.90	+0.32	+0.54
은	15.756	-0.19	+2.07
알루미늄	1,878.50	+0.72	+1.82
전기동	5,923.00	+0.08	-1.23
아연	2,498.00	+2.46	+2.38
옥수수	382.25	-0.20	+1.80
밀	516.75	-0.05	+1.03
대두	924.25	+0.30	+3.21
커피	102.75	+1.13	+1.78

주요 통화	종가	D-1(%)	D-5(%)
Dollar Index	95.708	-0.49	-0.48
EUR/USD	1.1475	+0.70	+0.07
USD/JPY	108.67	+0.15	-0.93
GBP/USD	1.2770	+0.37	+0.13
USD/CHF	0.9798	-0.79	-0.23
AUD/USD	0.7145	+0.45	+1.36
USD/CAD	1.3296	-0.58	-2.50
USD/BRL	3.7333	+0.48	-3.69
USD/CNH	6.8454	-0.30	-0.37
USD/KRW	1118.60	-0.52	-0.13
USD/KRW NDF1M	1116.85	+0.05	+0.26

10 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2.691	+2.30	+0.65
한국	1.980	+1.30	+4.30
일본	-0.010	+2.80	-1.30
독일	0.221	+1.30	-2.10

10 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스페인	1.498	+2.60	+8.50
포르투갈	1.817	+1.40	+10.30
그리스	4.361	-2.50	+1.50
이탈리아	2.897	0.00	+15.80